

연중 제22주일

기도서 P. 425 B해

제1독서(신명 4, 1-2. 6-8)
제2독서(야고1, 17-18. 21-22. 27)
복음(마르7, 1-8. 14-15. 21-23)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감론



가짜 당달봉사

이 순 성 신부

눈을 딱히 뜨고 있으면서도 주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당달봉사라 한다. 사람들은 이들을 차라리 눈이 감겨 보지 못하는 이들보다 더 측은히 여기며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당달봉사보다도 더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 불것 안 불것 다 보면서도 짐짓 당달봉사인척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난번 임시국회 이틀째, 소위 대정부 질문중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충고와 질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오히려 「공화당 정부에게 정권이 양 준비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일신상의 피로움은 있더라도 5천만 민족의 생존 및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박대통령의 영도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절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밝혀둔다.(진복일보 7월 24일자)고 하면서 마치 현 정부의 대변인인양 아니 입법 행정 양부서의 대변인인양 떠들어댔는데...

자! 과연 그는 진짜 당달봉사냐, 아니면 당달봉사인척하는 가짜냐? 그가 진짜 당달봉사라면 측은한 마음에서 안쓰럽게 여길 것이나 당달봉사인척하는 가짜라면 참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라. 신문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실정(失政), 규탄의 소리를! 진실로 박대통령의 일신상의 피로움을 감해주고 싶다면 겸허한 자세로 다각에서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겸심은 친심이요, 친심은 곧 하느님의 뜻으로서 제명화되어 백성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13년간 장기집권 함으로써 백성을 피곤하게 만든 그 전통을 현 정권도 고집하려는가? 이미 19년을 집권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더 긴 세월동안 백성을 피곤하게 하려는가?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밝혀둔다.

“당신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마르코 7장 8절)

이제 더 이상의 가짜 당달봉사 행세를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만 불쌍하게만 느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년 세월을 당달봉사인척 녀살스러이 몇 년 살기위해 입고 쓰고 배워왔단 말인가? 너무도 불쌍하다. 진정 백성의 생존 및 안보와 번영을 위한다면 이제 좁은 당달봉사라는 가면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피곤한 백성에게 희망을 안겨주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명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수류분당 주임신부>



긴급조치 9호,

재 발동(?)

지난 8월 26일자 각 주요 일간지에 긴급조치 9호가 재(?)발동됐다. 검찰총장의 전국 검찰에 지시한 내용중에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전파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사범, 또한 이같은 내용을 제작하여 배포, 판매, 소지,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진원지 전파 및 유포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압수하고 관계자는 모두 구속 기소하여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한 것이다(8월 26일자 조선일보 및 각 일간지) 글씨다, 요즘 전주시내 각 다방과 유흥업소에서 이상한 유인물이 유포되고 있다. 그것도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므로써 사회불안을 조성시키는—따져보면 긴급조치 9호에 즉각 적용되는 내용인 것이다.

그 유인물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그 전단의 유포경위는 왜 못 밝히고 묵인하는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안동교구 조작극을 베레비나 라디오 방송, 각 일간지에 공격적으로 왜곡전파하여 이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총화를 꾀는 일은 긴급조치에 위반되는 일이 아닌란 말인가?

한 교구의 주간지로서 각 분당에 배달되어야 할 숲정이 후보가 지난주에도 중간에서 차단되었다.

어디서는 긴급조치에 위반되는 유인물조차도 공격적으로 유포하고 각 메시지를 증대하여 연일 계속 허위보도하는 반면, 사실 허위날조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숲정이를 철저히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위 긴급조치 9호의 적용대상을 좀더 뚜렷하게 알고 싶다.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 진실이 오해되거나 시간이 요할지라도 진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숲 정 이 산책





「농민들에게 감사하자」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7월 15일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2만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삼종기도를 바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강론을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낮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大地를
경작하는 농민여러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제
농업개혁과 농촌발전을 위한 세계회의의 대표자들을 만
나보았습니다. FAO에서 개최한 이 회의는 우리로 하
여금 인류의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봉사하는 수
많은 농민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아주 지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즉 땅을 가꾸고 식량을 생산함으
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지탱해주고 있습니
다.

우리 모두가 농민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에 대해 우리가 존
경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농업의 중
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고
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그들이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
가는데 합당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농업문제에 대한 우리의 공정한 태도는 그것이 인류의
매일매일의 생활과 근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상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
땅을 경작하며 땅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제3세계의 경우
농촌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농촌의 상황과 농민의 노동실태는 나라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이는 물론 농업기술의 발전도에 따라 다르기
도 하지만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본 농민들의 권리, 농
업행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소중한 노동을 하는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라는 의식을 갖는 일이 없게끔 다함께 기원해야겠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산업의 발
전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보다도 농민들이 그
들의 최저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부정한 상황에도 역
시 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강론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없으나, 우선 모든
농민들이 교회가 그들의 노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전세계의 모든 농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포도나무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들을 강복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보
호하시어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의 이웃에게 양식을
제공하며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
하고자 합니다.



전주 성모병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천주교 전주교구—

전주 성모병원이 그 모습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성모
의원으로 문을 연지 30년만에 그 본연의 자세에 더욱 충
실하기 위해서 몸살을 치루는 고통을 자청(自請)하고 나
신 것이다.

성모의원을 개설하였던 故 김헌배 주교께서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리
하여 1946년에는 시약소(施藥所)를 여시고, 이어 49년에
는 성모의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오지리 부
인회의 정성어린 도움이 있어 65년에는 종합병원으로 탈
바꿈을 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봉사했다
고 하지만, 병원의 설립정신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이 적
지 않았다. 여기에 교회의 아픔이 있었다. 성모병원은
진정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인가? 고통받는 어련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 있는 안식처인가?
성모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하는 스
스로에 대한 물음들이 우리의 가슴을 두렵게 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UN의 WHO(세계 보건 기구)는 연차보고서에서 “저개발
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서구식 병원중심 체제의 의료제
도만으로는 질병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전망”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 및 체제에 따르는
운영문제가(의료수가의 부담 가중)이 바로 그 근거라 하
겠다. 그러나 병원의 문턱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혜택만 해도 그렇다. 아직은 그 혜택에서 소
외된 서민들이 많다. 그래서 아직도 문턱은 높다.

한국 주교회의의 인성회가 지적한 교회 병원들의 아픔을
보자. —“초기에는 가난한 서민계층을 상대로한 자선(慈
善) 의료형식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외국 원조에 의존
하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선의료가 가능했으나, 격감되
는 의료수수에 따라 <자립>이란 지상과제로 의료시설,
제도등이 대형화한 것은 일반적인 교회병원에도 해당된
다고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교회병원이 의료봉사
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민, 특히 저변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야 할 그리스도교회 당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한
논의가 분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교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성모병
원의 문을 닫는다. 아니, 닫는다고 보다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고자 새로이 문을 여는 것이다. 교회정신에 합당
하게 봉사할 수 있는 진로소를 여는 것이다.

많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고
자 하는 이 아픔을 이해하고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겠다.

그간 몸과 마음으로 애써준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충심
으로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앞날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② 8629 ② 4415 군산 ③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행정, 검찰, 세무, 경찰, 교정, 보도, 3군사,
은행(부기·주산), 공인감정사, (4·5급)

고입 대입 검정고시 주·야간

국·영·수 종합단과(매월 1일, 15일 개강)

이리 경문학원

원장 한정상

교사초빙 : 전화 이리 ② 5943 · ② 4415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일치해야...”

—교구장 영명 축하 행사, 뜻깊게 마쳐

이 어려운 시기에 교구장이신 김재덕 주교님의 영명축하 행사가 지난 28일 교구 평협 주최로 있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일치하는 힘을 얻고자 교구장 서임 6년만에 처음으로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주최측의 인삿말이 주는 느낌이 새롭다.

가톨릭 센터 회의실을 꽉메운 120여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과 함께 한 미사강론에서 주교님은 성아우구스띠노 주교 학자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공포를 일으켜 주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교구내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축하식에서는 교구평협이 기증한 차량구입성금(※ 현재 차량은 노후하여 쓸모가 거의 없음)과 각분당 단체에서 준비한 예물증정, 축사(조성호 평협회장·이종창 농민회 전국 지도신부)와 주교님의 답사가 있었다.

우중에서 영명축일을 지낸 문정현 신부(당일 주교님과 김종택·법석규·문규현 신부께서 면회함)와 안동의 정호경 신부의 건강을 염려하신 주교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일치하자”고 당부하였다.

「기도의 합성, 하늘에 치달다」

—전국 기도회 소식—

진실을 밝히려는 신앙의 의기는 어디서나 충천(衝天)하였다. 그간 각 교구에서 기도가 열릴 때마다 짙 짙 들어찬 군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했거늘 민중의 소리를 외면하는 자는 곧 하늘의 소리를 외면함이니 이는 바로 하늘에 대적함이라.

그동안 각 교구의 전국단위 기도회 소식을 본다. 지난 20일 병동성당의 전국기도회에 이어서 광주대교구(25일), 인천교구(25일), 수원교구(28일), 대전교구(30일), 대구대교구(3일 예정)—전국 각지에서 속속히 개최되는 때 기도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이는 100여명의 사제와 수천명 신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허위사실에 대한 당국의 과잉된 보도를 믿지않고 사실의 그 진상을 확인하려는 마음이라.

신념에 찬 주교님들의 강론은 이 나라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당국의 안동교구 사태조작에 대한 허위를 폭로하며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역시, 진실에 대한 인간 본연의 결렬한 자세일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의 합성은 끊임없으리라.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 감사합니다

전주 선의의 사람들 10만원, 원평분당 1만원, 정읍 서수산나할머니 3천원, 중앙 익명 21,500원, 무주 안드레아 10만원, 무주 임아우구스띠노 3천원, 중앙 김빈첸시오 1만원

요심이 (318)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준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⑥ 6219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종당 한약방

김남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⑥ 2277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타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기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⑥ 1585

M^c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⑥ 4451번
유리리아나

글·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정금태(방지계)
☎ 2-3301 (자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⑥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수시 접수〉
신설! 새로이 인가된 학원
주산·타자 〈주·야간〉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새로운 타자기 완비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판인 김제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442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교권과 인권수호 기도회...① 9월 3일 오후 8시 군산 팔마성당, ② 9월 7일 오후 3시 수류성당
주최: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 1. 제 4차 순교자 헌양대회 9월 30일(일)로 연기...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① 글짓기 원고마감...9월 15일(토)까지, 교구청내 평협 사무국으로
 - ② 그리기 대회...9월9일(일), 각 분당에서. 소재-순교정신을 기리는 내용, 대상-국민학생 도화지(8절)
 - ③ 성가 경연대회 결선...현양대회 당일
 - ④ 음변대회 결선...9월 9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원고마감-9월 5일 (원고제출자만 참가할 수 있음, 기일 엄수 바람)
- ※ 자세한 내용은 순경이 제347호(7월 15일자) 참조...날짜만 이와 같이 변경됨.
- 2. 중·고등학교 교리경시대회...9월 16일(일) 오후 2시, 범위-루까복음, 주요기도문, 가톨릭교리서 18~42과
- 3. 전교사 연수회...9월 20일(목) 오후 2시~22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 4. 제 2지구 청년 체육대회...9월 2일 9시, 군산교대 운동장, 많은 후원 바랍니다
- 5. 문학강좌...9월 15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강당
주제-현대 한국 작가들의 문제의식, 강사-구 상선생님
- 순경이가 무슨 영문인지 분당에 제대로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사제 인사발령(79. 8. 30일자, 괄호안은 전임지)...파티마주임 서리 김영일 신부(성모병원장), 신태인 주임 김병문 신부(강중), 장수 주임 이종원 신부(신태인), 중앙 제1보좌 왕수해 신부(장수), 노충동 보좌 나궁렬 신부(서강대)...부일 9월 8일(인수인제 9월 6일)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 계속 성원해 주시어 감사합니다...3면 참조

(중앙)

전화 ③651 3651 주임 신부 서 용 복
3874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프란치스코 3회: 2일(일) 오후 1시30분
2. 어머니회: 6일(목) 오전 10시
3. 성심부녀회: 7일(금) 어머니미사 후
4. 14처 목각: 상지회에서 기증
5. 학생들은 학생미사에 참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1,445원
2. 주일학교 개학: 9월 1일
3. 수요기도회: 5일 8시30분
4. 밀린봉헌금 채우기 운동: 교회살림에 관심을!
5. 8월 결산보고: 총수입-5,601,075원
총지출-5,534,146원, 잔액-66,929원
- 지난주 봉헌금: 87,231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광 노

(노충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김 성 록

1. 견진 대상자들의 성령세미나: 내일부터~8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오늘까지 견진 접수 바람)
2.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어머니합창단 월례회: 9월 7일 어머니미사 후
5. 재속청년회 임시총회: 오늘 10시~17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106,686원
1. 사도회 월례회: 2일 공식미사 후
2. 순정이 유치원 개원식: 9월 3일
3.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8일 오후 2시, 오후 3시-미사
미사후 어린이들과 과일파티와 레크레이션
4. 첫 영성체식: 9일 공식미사 전, 교리-매일저녁 7시
5. 예비자 교리안내: 화·수요일-오전 10시 수요일-저녁 7시30분, 일요일 공식미사 후
6. 학생회 월례회: 20일 많은 참석 바람
7. 바자회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8. 미사시간 변경 안내
주일-아침 6시·10시, 오후 7시30분, 평일-일·수~아침 6시, 화·목~저녁 7시30분, 금~9시기도후, 토~3시(아동미사), 7시30분(학생)
9. 신축기금 내주신분: 김경주(10만원), 정주복(25만원)
- 지난주 봉헌금: 150,42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성령기도회: 9월 4일 저녁 8시
2. 대학생활 모임: 월요일 오후5시, 빠짐없는 참석바람
3. 미사시간 변경: 금요일 오전 9시30분
4. 감사합니다: 제대초 봉헌-한춘자·요안나 자매
5. 유아세례: 9월 7일 오전 9시30분 부모님, 대부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6. 아동교리: 주일학교가 개학했습니다 많은 어린이 주일학교에 보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3,915원 교무금: 106,58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견진교리: 9월 3일~15일 오후 8시30분 (주일·화요일 제외)
3.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허테레사씨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4. 주일학교 시간변경: 어린이 교리-2시, 미사-3시
5. J.O.C 회원모집: 7일 오후 8시30분, 제 1차 회합
6. 성가연습: 매주(금) 오전 10시30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봉헌 바랍니다
8. 미사시간 늦게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6,65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역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8시반 미사후
3. "모입니다! 만납니다! 젊음을 발산합니다!" 젊은이의 밤: 9월 8일(토) 8시 대상: 30세미만 남녀(신심단체 초월)
4. 자모회: 피정: 9월 7일 안양 나자르 마을: 9월 8일(5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301,45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 분당신부님 본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유증에 계신 신부님을 위해 여러분의 정성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신부님을 위한 성금 283,000원)
- 1. 사도회: 금일 저녁미사 후 각 구역장 및 단체장들은 모두 참석하세요
- 2. 부녀회: 매일 마지막주일 공식미사 후
- 3. 청년회 모임: 매주(목) 저녁 8시
- 4. 성당주변 정리작업: 금일 공식미사 후 성당 주변 정리작업이 있습니다
- 5. 본당 제대위 최후의 만찬 조식을 말끔히 단장해주신 김남석(프란치스코)씨와 방학동안 수고해 주신 최상범 학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6. 교무금 납부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63,23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택
사도 회장 활 인 구

- ◎ 복자성월: 복자들에게 드리는 기도(기도서 P 22)
- 1. 사도회 주일: 10시미사 후 월례회